

2011 충청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

- 국가 _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 기간 _ 2011. 10.21 ~ 10.30 (8박 10일)



CONTENTS



I	개요	1
II	해외정책 연수배경	2
III	해외정책 연수결과 내용	3
	[1] 출장 세부일정내용	3
	[2] 오스트리아	4
	[3] 헝가리	18
	[4] 체코	24
IV	도정에 접목가능한 우수시책	28
V	출장소감	36
VI	언론 보도내용	39

I 개 요

▶ 기 간 : '11. 10. 21(金) ~ 10. 30(日) 8박 10일

▶ 장 소 : 유럽 3개국(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 방 문 단 : 11명(의원 7, 의회사무처 2, 집행부 2)

- 의 원(7) : 강 철민, 김 문권, 이 광열, 이 종현, 이 준우, 조 길행, 조 이환

- 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2) : 최 육환, 이 연수

- 집 행 부(2) : 농수산국 이 흥우, 경제통상실 안 일선

※ 심의 의원회 개최 : 심의 의원 전원참석 원안가결 (2011. 8. 19. 15:00)



II 해외정책 연수배경

1 한-EU간 FTA(Free Trade Agreement) 발효에 따른 중앙정부적 지원내용

[재무부 수출후원국 - 오스트리아]

- ① 국제교류활동내용, 수출기업에 대한 내용파악
- ② 외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2 2012 온실가스 감축 시행을 앞둔 선진국 신재생 에너지 정책

[탄소 순환 마을 - 오스트리아]

- 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 사례
- ② 향후 신재생 에너지 확대계획

3 선진 농축산 친환경 정책

[친환경 축산농가 - 오스트리아]

- ① 친환경 축산물 생산 과정
- ② 농촌 체험관광과 연계 추진내용

4 옛 정취가 묻어 나는 전통시장과 시장 활성화 방안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전통시장]

- ① 시장 현대화 사업내용과 지원내용
- 예) 주차장 시설, 아케이드 설치, 고객휴게시설, 이벤트광장 조성, 보조금 지원액 등
- ② 인근 대형마트와의 관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

5 우리나라 자치제도와 비교

[부다페스트 시의회 - 헝가리]

- ① 광역과 기초의회간 업무영역
- ② 의회의 특별한 조직관계

6 우리 농정과 비교

[농림부 - 체코]

- ① 한국-EU간 FTA(Free Trade Agreement) 체결에 따른 체코 정부의 농업관련 대책
- ②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 지원시책 내용

III 해외정책 연수결과 내용

[1] 출장 세부일정

일 자	장 소	교 통 편	연 수 일 정
제1일차 (10. 21, 금)	대 전 인 천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전용차량 국제항공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회 출발(07:30) → 인천공항(11:00) • 인천공항 출발(14:00)/KE905 • 프랑크푸르트 경유 • 비엔나 도착 → 숙소로 이동
제2일차 (10. 22, 토)	비엔나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엔나 농산물 시장 방문 - 90년의 역사를 가진 농산물 도매시장 • 문화 체험 - 쉐부른 궁전, 성 슈테판 사원
제3일차 (10. 23, 일)	부다페스트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다페스트로 이동(차량이동 4시간) • 부다페스트 중앙시장 방문 -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
제4일차 (10. 24, 월)	부다페스트 비엔나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다페스트 시의회 방문 - 지방의회 상호비교 견학 • 비엔나로 이동(차량이동 4시간)
제5일차 (10. 25, 화)	비엔나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리아 재무부 수출지원국 방문 - 오스트리아 수출관련 중앙부처
제6일차 (10. 26, 수)	구 씩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씩으로 이동(차량이동 3시간) • 신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마을 방문 - 신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자립 마을
제7일차 (10. 27, 목)	짚쯔부르크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짚쯔부르크로 이동(차량이동 4시간) • 농촌체험마을 방문
제8일차 (10. 28, 금)	프라하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하로 이동(차량이동 4시간 30분) • 체코 농림부 방문 - 농업분야 의견 교환분야 의견 교환 • 문화 체험 -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체코의 성
제9일차 (10. 29, 토)	프라하	국제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하 공항으로 이동 • 프라하 출발(KE936)
제10일차 (10. 30, 일)	인천 대전	국제항공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도착(12:25) • 인천출발(13:00) → 도의회 도착(16:00)

[2] 오스트리아

1 오스트리아의 농업실태

- 농가수 : 81,000 농가
 - ※ 100% 전업농은 거의 없음 - 기계화 발달로 겸업
- 가구당 경지면적 : 18ha
- 주요 재배작물 : 밀, 옥수수, 채소, 축산(소, 돼지, 식품 유가공업 등)
 - 생산·유통·가공을 통합
 - 돼지고기의 경우 우리나라 「농부 보쌈」에 100% 수출
- 유기농산물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8%**
 - 소 방목 허가조건 : 1ha당 소 2마리
- 농민지원기관(정부위탁사업, 각종 프로젝트 참여)
 - ① 농업회의소 ② 상공회의소 ③ 노동조합 ④ 노동회의소
 - ※ 특히, 유럽연합 27개국 이 모여 만든 「유럽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으로 지원신청
⇒ 유럽위원회 1/3, 중앙정부 1/3, 자부담 1/3
- 농산물 쿼터제 생산
 - 당초 신고한 양만 생산, 초과된 부문에 대해서는 과세
 - 친환경 농산물 생산권유 및 우선지원
- 농민 연금 시행(생산액의 40~50% 세금 부담)
- 풍수해 등 자연재해 보험 가입
- 농지상속은 없고 부자간에도 매매
- 오스트리아 국민의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 ※ 유기농 인증기관 : 식약청
- 농촌 도시간 문화와 경제적 차이가 없음

2 비엔나市

- 면적 : 414.65km²
- 인구 : 170만명
- 1인당 GDP : 46,000\$
※ '09, '10, '11 3년 연속 세계에서 제일 살고 싶은 곳으로 선정
- 시청사 : 133년전 건축조각품
- 도시계획은 140여년 전에 계획된 도시건설
- 녹색지대 확보 : 전체 면적 1/2 공원 조성
- 건물색 : 녹색 · 황색 · 회색으로 구성
- 교통흐름 : 회전교차로, 일방통행
- 사회보장제 철저 실시 : 수입의 40~50% 세금 납부
※ 그리스 모라트리움의 원인 : 복지재원 없이 보편적 복지 실시한 결과
- 주택 : 고가이므로 대부분 임대(20만채), 전월세
- 고출산 유도정책 : 출산 보상금(2002년부터 시행) 매월 800천원 지급
- 예산재원 :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
※ 비엔나 1년 예산 : 약 20조원
- 관광(매년 해외 관광객 870만명) · 문화 · 행정도시(유엔기관 종사자 4,000명)
- 비엔나 시청사 앞 광장 이벤트 자원화
 - 11. 15 ~ 12. 31 크리스마스 광장
 - 12. 31 ~ 2. 28 스케이트장 등 1년 내내 행사실시
- 국제학회 적극 유치
 - 현재(11. 23) 세계 혈액협회 주관 국제 세미나 진행으로 비엔나 호텔 100% 예약, 주변 도시로 호텔 예약
- 쉐부른 궁전(28만평) : 1년 국내외 입장객 2,000만명
- 비엔나 시장 : 수도시장(간선)
 - 시의원 : 100명(임기 5~6년), 정당명부제(중 · 대 선거구제)



3 Gross Market

- 방문일시 : 10. 22(土) 08:30
- 면 적 : 300,000m²
- 점 포 수 : 105개소
- 개장운영시간 : 04시 30분 ~ 15시



▲ 그로스마켓 시장에서(1)



▲ 그로스마켓 시장에서(2)

4 나슈마크트(비엔나 전통시장)

- 방문일시 : 10. 22(土) 11:00
- 취급품목 : 야채, 식음료, 생필품, 청과물
- 100년의 역사를 가진 시장
- 문을 닫은 점포들을 간이식당으로 리모델링하여 먹자 골목화



▲ 고객들로 가득 차 있는 간이식당의 풍경



▲ 깨끗하고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는 야외 간이식당

● 매주 토요일 대형 주차장 이용 벼룩시장으로 이용



▲ 대형주차장을 벼룩시장으로 활용



▲ 벼룩시장을 이용하기 위해 모여든 많은 고객들

● 한 화훼농가 판매점 - 40년 동안 화훼 재배해 오고 있으며 직접 판매



▲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즐비한 전통시장(1)



▲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즐비한 전통시장(2)

● 11:00 시간대 인근 대형마트와 비교



▲ 끝이 보이지 않는 전통시장 이용 고객들



▲ 전통시장과 비교되는 한산한 인근 대형마트

5 Hundert Wasser Village (비엔나 임대아파트) 공공디자인

- 1980년 공모, 건축가 Hundert Wasser 작품당선
- 건축기간 : 1983 ~ 1985(3년간)
- 규 모 : 52세대, 쇼핑센터 3개소
- 창틀을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제작하여 아름답게 설치
- 옥상 정원을 조성하여 수목 250주 식재하여 공원화
- 아파트 중앙 공간에 정원 설치하여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경관조성
- 컨셉 : 일반주거 아파트 ⇒ 갤러리 미술조각 공예품화
 - 계단 타일도 도자기 크기가 서로 다르게 붙이고 중앙이 서서히 깊어 지도록 하여 물청소도 편리하게 설계



▲ 독특한 디자인의 공공임대아파트



▲ 아파트 내부를 기념품 판매점으로 개조하여 관광객 유치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① 전통시장
 - 문 닫은 가게를 리모델링한 후 먹자골목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성공
 - 주말(토) 대형주차장에 벼룩시장 운영으로 상생발전
- ② 농축산물 생산 쿼터제 실시로 경쟁력 확보 및 유기농 농산물 생산 확대
- ③ 시청 앞 광장 이용 연중 이벤트 행사로 관광객 유치
- ④ 국제학회 적극 유치로 관광산업 활성화
- ⑤ 공공 디자인화하여 볼거리 건축물 설치

6 오스트리아 재무부 수출후원국



▲ 재무부 수출후원국장 현관 영접



▲ 재무부 수출후원국 업무설명

- 수출 후원국장(실비아 마카) 영접, 담당과장(요한 키나스트)
- 재무부 수출후원국 업무
 - 시장경제정책(수출주도형 국가), 수출지원 업무
 - 관세, 조세, 채무에 관한 업무, EU 27개국과 조화
- 오스트리아 경제정책(EU 27개 국가와 연계)
 - 경제성장률(2010년 기준) : 오스트리아 2.3%(EU 평균 1.8%)
 - 국민소득(2010년 기준) : 오스트리아 33,900유로(EU 평균 27,500유로)
 - 수출비율(2010년 기준) : 오스트리아 35%(EU 평균 27.3%)
 - 수출실적(2010년 기준) : 1,100억 유로
 - 유럽연합국 79%, 미국 10%, 아시아 9%(일본, 중국, 한국 순), 아프리카 1.3%, 호주 0.7%
 - ※ 수출주도형 국가, 유럽의 심장부
 - 유럽연합 27개 국가 중 경제 정책순위 2위(전 세계 순위 14위)
 - 실업률 3.5%(유럽국가 중 2번째로 낮음)
- 한국과 교역현황
 - 수출 : 7억 1,000만 유로(기계, 특수차량, 철강, 의료기계, 의학, 화공)
 - 수입 : 4억 7,000만 유로(LCD, 자동차, 전자기기, 핸드폰)
 - ※ 향후 우리나라 잠재적 가치가 큰 나라로 보고 있으며 투자할 계획도 있음
- 사회복지 안정화
 - 기업, 국가, 근로자 간 사회적 동반협력 관계
 - 국민소득수준 높음으로 고급 전문인력 양성

≫≫ 질의답변 내용

○ 강 철민 위원장 ○

■ 질문

친환경 에너지 분야 육성에 대한 정부 시책은 무엇인지?

■ 답변

- 친환경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1976년 헌법에 원자력 발전 건설을 못하도록 규정
- 전력의 경우 수력발전 60%, 화력 37%, 풍력 3%임
- 2050년 부터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앞으로 태양열·풍력·바이오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음

○ 조 이환 의원 ○

■ 질문

2013이후 철강, 공업단지 등 발전에 따른 매연 저감대책은 무엇인지?

■ 답변

- 도쿄 의정서 기준이 적게 협정되었음(오스트리아 정부측에서 볼때)
- 매연 시설물은 정화처리 시설화
- 오래된 건물은 점차 리모델링화
- 환경 침해하는 모든 시설, 차량 ⇒ 높은 세금부과
- 현재 수소차량 연구 중, 앞으로 전기 자동차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2013~2020 바이오디젤 단계적 추진

○ 조 길행 의원 ○

■ 질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 답변

- ABA 정부자회사 통해 투자기업지원
- 조세부분 특혜, 법인세 25%
- 현재 삼성, 현대, 기아, LG 사무소 있음
- 재무부, 상공회의소, ABA 적극 지원

○ 이 광열 의 원 ○

■ 질문

신 성장 미래전략 산업은?

■ 답변

- 친환경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태양열, 풍력, 바이오 등)
-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계산업
- 수출후원국에서 “국가 경제구조가 튼튼하고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수출입 은행에 정부 지분은 100%임

○ 이 준우 의 원 ○

■ 질문

한국에 수출하는 농축산물(돼지고기 제외) 품목은? 농업 보조금 지원사항은 무엇인지?

■ 답변

- 현재 돼지고기 외 농축산품은 없음
- 다만, 2차 가공 유가공 식품은 일부 수출하고 있음
- 농업위원회(EU 27개 국가)에서 농업보조금 지원
단, 친환경 농산물 위한 시설물 지원임
- 종전의 농축산 농가는 줄고 유기농과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늘고 있음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① 오스트리아는 유럽 중심지, 수출주도형 국가
- ② 사회복지가 안정된 국가(수입 40~50% 세금부과)
- ③ 친환경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추진(태양열, 풍력, 바이오)
- ④ 수소차량연구, 전기자동차화, 바이오디젤의 단계적 추진

7 산림탄소 순환 마을



▲ 폐목재 이용 지역 발전소



▲ 도이치 마을이장의 현황설명

▶ 안내 및 설명 : 도이치 마을회장

1) 귀쌍市 기본현황

- 면적 : 49.31km²
- 인구 : 4,300명
※ 부르겐란트주 인구 285천명

2) 귀쌍 마을

- 45년간 공산주의 철의 장막 시절 헝가리 국경지대임
- 1988 정부통계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장 가난했던 곳
- 실업율이 높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추세였음
- 철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원 전무한 지역

3) 삼림탄소 순환마을 조성배경

- 1990년 마을주민 전체회의 주제
 -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마을 조성할 수 있을까?”
 - 주민토론 얻어낸 결과 목재 등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자체이용, 판매)
- ※ 1년간 간벌한 양이 4년간 방치상태였음
-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사례
 - 기존 에너지(석유, 가스, 전기 등) 사업관계자 적극 반대
 - 에너지를 편하게 사용하던 마을 주민들로 반대
 - 3년간에 걸쳐 마을 주민들과 토론·협의를 한 결과 동의 얻어냄

● 소각 발전소 건설 가동(1996년)

- 귀성시내 공공건물 · 공단 · 개인주택 등에 전기 · 난방 공급실시
- 전력은 잡초목 · 옥수수대 · 곡물찌꺼기 이용, 난방은 나무 이용

● 현재 귀성시 에너지 생산설비 현황(지급량 기준)

- 석유 : 바이오 디젤로 200% 생산
- 가스(열) : 98% 생산
- 전기 : 140% 생산

● 에너지 생산으로 얻어진 효과

- 일자리 창출 : 1,200여명(경제유발효과 1,300만 유로)
- R&D : 세계적 저명한 공학박사 30여명 연구 중(세계 유명 공과대학생 9명 유학 중)
- 지방정부와 연구소간 연계하에 기업지원
- 1995년 연간 이산화탄소 35,000톤 배출
⇒ 2007년 5,000톤으로 감소(1/7 수준)

● 친환경 관광산업 모델화

- 관광객 1년 50,000여명 방문(관광수입 12,000만 유로)
- 1년 에너지관련 지출비용 3,500만 유로 절약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① 마을지도자 육성이 중요함
- ② 3년간 주민들이 끈질기게 토론 · 협의하에 의견통일
- ③ 신재생 에너지 생산자체를 관광 상품화

8 레오강(Leogang) 농촌마을



▲ 레오강 체험마을 현황설명 청취 장면



▲ 레오강 농촌체험마을 민박집 앞에서

☞ 안내 및 설명 : 페르반 베르나드(축산후계자)

1) 마을 현황

- 인구/농가수 : 3,500명/110농가
 - ※ 1960년대 까지 149여 농가가 농업에 종사
- 농 지 : 3,700ha(농가당 33.6ha)
- 농가분포 : 목축업 108농가, 유기농 농산물생산 2농가
- 주요산업 : 축산, 관광, 유가공 식품, 스키 등 스포츠

2) 주요 브리핑 내용

- 레오강 농촌 되살리기 프로젝트 배경
 - 1970년 레오강 지역이 폐광됨에 따라 경제위기 발생
 - 주민들 타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
 - 마을 주민들이 모여 “마을 발전계획” 모색
 - 주민들로부터 제시된 내용(산악지역 환경의 악조건을 최대한 역발상으로 이용하자)
- ① 축산업
- ② 농촌체험장화(농촌 호텔사업)
- ③ 스포츠(스키,골프) 장소 제공
- ④ 산악등반 등 레저시설 유지
- ⑤ 빵 만들기 체험

● 잘 사는 농촌만들기 추진사업

- 기본방침 : 자연 그대로 유지 보존하면서 추진
- 축산농가 및 옛 대가족제의 주택 리모델링 지원요청(지방정부)
- 인프라 기초시설 사업추진(도로, 향토박물관, 상수도 등)
- 스포츠 경기장(스키, 골프, 산악등반) 유치
- 친환경 유가공품 생산 : 최고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 타 지역보다 2배 이상 고가로 판매

- 농촌 체험장화 : 도시민 가족단위로 함께 숙식하면서 치즈만들기, 착유, 꿀 수확 체험, 아이들과 동물(소, 염소, 양 등) 함께 하기

● 페르반 베르나드 농가 연수입 : 20만 유로(3억 2,000만원)

- 축산 수입 : 9만 유로
- 관광 수입 : 5만 유로
- 전통식 빵 생산 : 4만 유로
- 유가공 식품 생산 등 : 2만 유로

● 오스트리아 전 지역 홍보 3대 브랜드

- 소 치즈, 염소치즈, 소고기

● 대부분의 농지는 축산업을 위한 초지로 곡물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실정임

⇒ 향후 장기적으로 일조량이 많아지면 곡물농사로 전환 계획

● 축산업과 민박, 축산물 가공업 등 2~3가지를 겸업하고 있음

⇒ 농가 고소득 창출

● 대부분의 농가가 유기농 우유, 치즈 등을 생산 판매하여 일반 생산 농가보다 2~3배 소득 창출

● 1ha당 2마리 소 방목으로 친환경 축산업 경영

● 축산업과 민박을 이용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 질의답변 내용

○ 이 광열 의원 ○

■ 질문

농업, 축산 농가에 대한 정부지원 사항은?

■ 답변

- 지역과 지형에 따라 다르며 대략적으로 1년에 1ha당 90유로~400유로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 김 문권 의원 ○

■ 질문

소의 번식은 어떻게 하는지?

■ 답변

- 80% 정도는 인공수정을 하고 20% 정도는 자연수정을 하고 있음

○ 조 길행 의원 ○

■ 질문

축산업이 주업인데 한 가지 민감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한 농가당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 답변

- 1년에 20만(3억 2,000만원)유로 정도의 수입을 올렸음(보고자 기준)

○ 조 이환 의원 ○

■ 질문

영농 규모는? 모두 자가 소유인지?

■ 답변

- 전체 32ha를 경영하고 있는데 이중 10ha 자가소유이고 10ha는 개인으로부터 임대 받은 것이고 12ha는 국유지임

○ 이 홍우 농정기획담당 ○

■ 질문

어떠한 일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지?

■ 답변

- 대부분 축산업과 민박을 주업으로 삼고 있으며 저희(보고자)는 축산 50%, 민박 25%, 빵 판매로 25%의 수입을 올리고 있음

○ 강 철민 위원장 ○

■ 질문

향후 체험관광과 연계 등 관광인프라 확충계획은?

■ 답변

- 과거에는 이 지역이 폐광지역이었으나 어떻게 레오강 마을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주민회의 결과 축산업과 스키장, 숙박시설 확대 등 겸업을 통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었음
- 향후 이 모든 인프라를 관광자원으로 이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임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① 마을 전체 의견집약 중요(왜 못사는가 : 잘 사는 방법은?)
- ② 마을리더 역할 중요
- ③ 최고의 먹거리 생산
- ④ 자연환경 · 옛 농가 정취 살려 관광 자원화(농촌 호텔)

[3] 헝가리

1 부다페스트市



▲ 헝가리 부다페스트시청에서 초모시 머크로시 부시장과 인사



▲ 강철민 위원장(좌)과 초모시 머크로시 부시장(우)



▲ 헝가리 부다페스트시청 주요 업무설명(1)



▲ 헝가리 부다페스트시청 주요 업무설명(2)

▶ 안내 및 설명 : 문화 교육 부시장 초모시 머크로시

1) 일반현황

- 면적/인구 : 525.16km², 220만명
- 시장(시의장 겸임) : Clerk Zsolt Tiba
 - 의원 다수당 청년민주연합 18명 중 대표
 - 부시장 5명(보건, 재무, 도시, 용역, 문화교육)
- 조직 : 17개 조직(사무처장 책임)
- 고문위원회 : 의원 6명 중심으로 전문분야별 구성

2) 주요 브리핑 내용

- 1990년부터 선거 실시(시의원 34명, 임기 4년)
- 24개 자치구로 구성
- 市와 자치구의 행정영역
 - 시 : 구 2개 이상 포함되는 행정(대규모사업)
 - 구 : 자체적으로 지방자치 실시(자체 해결 가능한 소규모 사업)
- 주요 산업 : 1차 산업(농업) 75%(주요 생산 곡물 : 밀, 옥수수, 해바라기, 유채 등)
- 1989. 10. 23.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
- 구별로 조세 제도가 다름
- 중학교의 경우 市가 운영하지만 또 區도 운영에 개입하는 등 일관되고 효율적인 행정 위해 “행정 개혁”이 필요한 시기임
 - ⇒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 市가 운영하는 기관
 - 용역 : 가스, 상하수도, 공원관리 등
 - 문화 : 15개 극장, 박물관, 도서관 등
 - 교육 : 중, 고교 이상(유치원, 초등교육은 구에서 운영)
 - 사회복지 : 시립의료원(정부로 이관 추진 중)
- 앞으로 행정역할 부담 진지하게 검토 중
 - 갈등 사례 : 도로개설 사업, 주차장 운영 시스템 市와 區간 상충되기 때문
- 시청 건물은 250여년의 역사를 가짐



≫≫ 질의답변 내용

○ 조 이환 의 원 ○

■ 질문

헝가리의 전력수급과 축산분뇨, 생활용수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 답변

- 원자력 1개소, 40~60% 가스는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음
- 풍력보다는 태양광 선호, 온천수 이용한 지열로 난방
- 쓰레기 소각으로 열병합 에너지 생산
- 축산분뇨 : 완전 100% 퇴비화하여 농사에 사용
- 생활용수 : 유럽연합의 도움 받아 정화처리한 다음 도나우강으로 보냄

○ 조 길행 의 원 ○

■ 질문

무상급식 실시 여부는?

■ 답변

- 원칙적으로 전국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부모경제 여건에 따라 선별적 복지실시

○ 이 광열 의 원 ○

■ 질문

외국인이 헝가리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나?

■ 답변

- 2~3년내로 유럽연합 국가간 토지구입 가능
- EU 외 국가 출신의 경우 영주권 얻어야 토지구입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음

○ 김 문권 의 원 ○

■ 질문

브랜드화 된 농업상품은 무엇인지?

■ 답변

- 포도주 브랜드에 대하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음
- '토카이' 와인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기가 있음

○ 이 준우 의 원 ○

■ 질문

상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답변

- 위원회는 업무분야별로 10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음
-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후 본회의에서 결정



▲ 부다페스트 시청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 시청 관계자에게 선물전달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① 1990년 이후 지방자치 실시로 역사가 짧기 때문에 광역·기초 자치간 영역이 혼재되어 있어 행정혁신(개혁) 필요
- ② 무상급식은 부모 경제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③ 신재생에너지, 축산분뇨의 비료화

2 부다페스트 중앙시장



▲ 부다페스트 중앙시장 전경



▲ 중앙시장 업무현황 청취

▶ 안내 및 설명 : 안 갈라쉬

1) 주요 브리핑 내용

- 1800년대 시장들이 청결하지 못해 새로운 시장 건립 필요
- 1892년 전통시장 건축설계 공모(편리하고 아름다운 디자인화)
- 1894년 착공해서 1896년 완공
- 규 모 : 대 지-10,400m², 건 축-24,000m²
- 형 태 : 3층(1층-농축산물, 2층-공산품·수공예품, 지하-발효식품, 수산물)
- 점포수 : 198개소(소매업)
- 1894년 건축당시 바닥이 기울여진 상태이용
 - 건물바닥을 비스듬하게 건축 - 파장후 물청소등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건축함
- 시장 유치 지리적 여건
 - 철도이용 용이
 - 강을 이용하여 배로 수송
 -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함
- 市 당국과 상인회간 긴밀한 소통체계 구축(월 2회)

≫≫ 질의답변 내용

○ 강 철민 위원장 ○

■ 질문

관광객이 주로 오는 시기는, 얼마나 찾고 있나?

■ 답변

- 3월~10월에 주로 관광객이 많이 시장을 방문하고 있음
- 1일 최고 23,000명, 최저 16,000명

○ 이 종현 의원 ○

■ 질문

상품(농축산물 등) 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답변

- 공동구매, 소매상별 직접 구매하고 있음

○ 김 문권 의원 ○

■ 질문

관리운영은 누가 하고 있나, 직원수는?

■ 답변

-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수는 30명임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① 전통시장에는 최고의 상품전시, 볼거리(건물, 이벤트 등), 먹거리(저렴하고 맛이 있음)가 있어야 함
- ② 청결하고 친절, 정 넘치는 장 ⇒ 고객, 관광객 유치로 연결
- ③ 1800년대에 미래를 반영한 설계
⇒ 현재의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등) 유사한 상품진열 체계
- ④ 헝가리(부다페스트) 주요인사 방문코스화

[4] 체 코

1 농림부



▲ 농림부 국장의 브리핑 장면



▲ 체코 농림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 안내 및 설명 : 마르타 테플라 과장 외 4명

1) 마르타 테플라 과장 인사말씀

- 농림부에서 30여년간 근무했지만 한국인과는 첫 만남임
- 2011. 7. 1 한국과 유럽연합간 FTA 시행 후 만남의 인연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금년 11월 중순 체코농림부에서 한국의 농림수산부를 방문할 계획임
- 향후 한국과 체코정부간 대학 등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주요 브리핑 내용

- 모든 EU가입국 농가는 유럽농업협약에 따라 농업경영을 해야 함
 - 유럽 전체의 환경을 감안하고 농업 경쟁력 제고
 - 2013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규칙을 정해 실행
 - 2007~2013(6년간) 농업부문 전체적으로 환경변화됨에 따라 농업경쟁력 확보가 중요
- 2011년도 1년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은 36억 유로(5조 7,600억)
 - 28억 유로(78%)는 유럽연합 지원, 8억 유로(22%) 체코 정부가 부담
- 600여개의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사업비의 40%범위내 지원
 - 4,600만유로(7,360억원)가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에 지원

- 모든 농업계획은 EU(유럽연합) 농업위원회가 결정함
 - 농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일부 지역 휴경결정하면 보조금지급하고 다음 농작물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휴경하면서 관리함
- 모든 농업계획의 추진 절차
 - ① 각 분야별 공모 ⇒ ② 프로젝트별 심사 ⇒ ③ 외국에 대한 경쟁력 확보
- 모든 농업프로그램의 지원기준
 - 유망 프로젝트 안건을 유럽연합농업위원회에 건의
 - 채택될 경우 지원
 - 24개월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함
 - 사업비는 먼저 부담하여 사업추진 후 지원금 요청
- 농업프로그램의 지원분야 및 내용
 - 농산물, 축산, 바이오 우선지원
 - 가축 기본시설 : 40~60% 지원
 - 2007~2011 매년 지원 늘어가는 추세임
 - 특히, 새로운 창발사업시설,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시설작물 시설, 농업혁신사업은 우선지원
 - 농산물 유가공 중소기업(사료, 치즈, 낙농업, 와인관련) : 600여개 기업
 - 미래 신 성장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 나무 이용한 에너지
 - 귀농 농가지원(40,000유로) : 저온창고, 농기계 등 지원(분할상환), 교육실시
 - 농업관광사업 지원 : 펜션(숙박), 스포츠, 농업(촌)체험 등

※ 모든 지원대상 사업 ⇒ 지역별 자연환경 특성에 맞게 확정
- 모든 토지이용계획은 나투라 2000 계획에 의해 결정
 - 지역별 토지이용 계획과 지형형태에 따라 토지이용 결정
 - 토지 형태별로 보조금 지원금액 결정
 - 유기농, 비료, 무농약 실시여부 점검(화학제 사용못함)
 - 과일, 채소, 와인 등 세부적으로 심사에 철저
 - 친환경 보호구역 지정(공기, 물 등을 감안)



▲ 농림부 국장의 주요 업무설명



▲ 체코 농림부 관계자와 기념촬영

≫≫ 질의답변 내용

○ 강철민 위원장 ○

■ 질문

친환경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

■ 답변

- 1% 정도임(철저한 무농약, 화학제 사용 없음)

○ 이광열 의원 ○

■ 질문

친환경 인증 기관은?

■ 답변

- 3개의 팀에서 실시(토양, 농산물 등 철저히 점검)

○ 조이환 의원 ○

■ 질문

농업인력 수급에 문제는 없는지?

■ 답변

- 전체 인구의 3%가 농업에 종사(약 160,000명)
-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음

○ 이준우 의원 ○

■ 질문

농가당 평균 농경지 소유현황은?

■ 답변

- 유럽연합 27개 국가 평균의 10배 정도임

○ 김문권 의원 ○

■ 질문

유기농 농산물 생산계획은?

■ 답변

- 앞으로 5년 이내 유기농은 15%, 바이오는 3% 늘릴계획임

○ 조길행 의원 ○

■ 질문

방문단에게 소개할 좋은 시책은?

■ 답변

- 현재 좋은 모델, 시책구상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 추세임
- 많은 농지이용 관계로 농업 선호하는 국민이 늘고 있음

○ 이종현 의원 ○

■ 질문

한국과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은?

■ 답변

- 수출 : 맥주, 와인 등 주류, 유가공 식품, 조미료 등
- 수입 : 음료수 제품 등





IV 도정에 접목 가능한 우수시책

[1] 지역의 잉여자원을 이용한 지역에너지 문제해결 사례

- ❖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지역 에너지 문제 해결
- ❖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귀성市

1 주요 추진내용

- 1988년 정부통계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낙후된 가난한 마을
- 1990년 “어떻게 하면 잘사는 마을 조성할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마을주민 전체회의 결과
⇒ 목재 등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하여 자체이용과 타 지역에 판매 계획수립
- 1996년 소각발전소 건설 가동
⇒ 귀성市내 공공건물·공단·개인주택 등에 전기·난방 공급실시
(석유 : 바이오디젤 200%, 가스 : 98%, 전기 : 140% 생산)
- 에너지 자체생산으로 얻어진 효과
 - 일자리 창출 : 1200명(경제 유발효과 1,300만유로)
 - R&D : 세계적 저명한 공학박사 30여명 연구중
 - 1995년 이산화탄소 연간 35,000톤 배출
⇒ 2007년 5,000톤으로 감소
- 친환경 관광상품 모델화
 - 연간 50,000명의 관광객 방문
⇒ 관광수입 1200만 유로
 - 연간 3,500만 유로 외화 절약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마을 지도자 육성이 중요함
- 3년간 주민들이 끈질기게 토론·협약하에 의견통일
- 신재생 에너지 생산라인 자체를 관광상품화

3 도정 접목방안

【우리의 환경】

- 한국의 전기 생산은 대부분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의존
 - ➡ 막대한 외화 낭비와 원자력 공해 물질 배출
-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조림사업 시행으로 전국 산 어딜가나 울창한 산림 조성
 - ➡ 간벌 이용한 생산적인 목재 활용화 방안이 필요함

【정책 건의사항】

- 사전답사를 통한 현실파악 및 벤치마킹
- 타당성, 경제성 검토를 통한 소각발전소 도입
 - ➡ 소각발전소 1기당 1억 유로(1,600억원)이상 건설예산 필요
- 시범사업 지구 선정 후 경제성, 효과성 분석을 통해 확대
 - ➡ 시범사업의 주체는 지방자체 단체보다는 정부 에너지 관련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2] 주변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 ❖ 헝가리 부다페스트 중앙시장은 인근에 어부의 요새, 왕궁 세체나다리 등이 있고 시장가는 골목은 카페거리 조성되어
- ❖ 관광객들이 중앙시장을 찾도록 문화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활기가 넘쳐 흐르고 있음

1 주요 추진내용

- 헝가리 부다페스트「중앙시장」은 1894년 청과물시장으로 시작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 3월과 10월은 관광객이 90%차지
 - 개장 : 평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일요일, 공휴일제외)
 - 면적 : 24,400㎡, 점포수 : 198개
 - 운영 : 부다페스트 시가 운영
- 이 시장은 공모전을 통해 설립된 시장으로, 바닥이 평행으로 보이지만 기울어져 있는 것이 특징적임
 - 시장의 모토는 “ 청결과 위생”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음
- 중앙시장을 가는 골목은 카페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인근에는 어부의 요새, 왕궁 등과 접목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활성화 되어 있음



▲ 부다페스트 중앙시장 찾은 관광객



▲ 부다페스트 중앙시장 상인회장 상점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전통시장에 고유의 문화전통을 접목하여 관광명소화
-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이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 필요

3 도정 접목방안

【우리의 환경】

- 전통시장의 활성화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 초기단계
 - ➡ 전국에 문화관광형시장 8곳 선정 (우리도 3개시장)
- 전통시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및 문화소통 공간
 - ➡ 농촌인구 감소등 시설현대화 사업으로는 활성화 한계
- 전통시장에 우리의 고유문화, 특산품등 관광자원 접목 미흡
 - ➡ 주변의 관광자원, 지역축제, 스토리텔링, 상품개발 연계 부족

【정책 건의사항】

-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문화관광형 시장」육성
 - ➡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접목 관광코스화, 단기보다는 장기적 접근
- 시장별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있는 시장으로 조성
 - ➡ 문화체험장설치,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IT활용 서비스 기반구축
-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잠재력 있는 상품 개발
 - ➡ 지역향토자원 활용, 성장잠재력 있는 전통과 기술 접목 개발
-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도입 추진 필요
 - ➡ 전통시장+ 주변상권을 묶어 개발하는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3] 빈 점포를 활용한 카페·레스토랑 등 허가제 운영

- ❖ 문을 닫는 빈점포는 비엔나시의 승인을 받아 관광객(고객)들을 위한 카페·레스토랑으로 리모델링하여
- ❖ 활기 넘치는 비엔나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음

1 주요 추진내용

- 오스트리아 나슈마크트「비엔나 전통시장」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시장전형적인 우리의 전통시장 환경과 유사한 시장
 - 인접한 주차장에는 매주 토요일 「벼룩시장」개설 운영
- 오랜 전통시장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취급품목은 야채, 유기농산물, 식음료, 생필품 등 판매하는 상설시장
- 주요 고객은 전통시장(고객)+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많이 찾고 있었음
 - 지역의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시장 가치의 증가
- 이시장의 특징은 문을 닫는 빈 점포가 생기면 비엔나시로부터 허가(승인)을 받아 카페·레스토랑 등 고객을 유치 할 수 있는 시설로 대체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카페 리모델링한 상점



▲ 레스토랑 리모델링 상점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젊은 세대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빈점포 활성화
- 전통시장내에도 카페·레스토랑이 가능하다는 점
- 상인중심 시설 편중보다는 소비자 중심시설 설치
- 시장 및 상점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가치 재발견

3 도정 접목방안

【우리의 환경】

-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전통시장 찾는 고객 감소
 - ➡ 전통시장내 빈점포 증가로 시장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
- 40대 이상의 중장년층(65.1%)이 전통시장의 주된 고객
 - ➡ 젊은 층은 시설노후, 상품 다양성 부족 등의 이유로 기피
- 대형마트, SSM, 전자상거래 등 소비형태 및 상업환경 변화
 - ➡ 전통시장 매출의 지속적 감소 발생

【정책 건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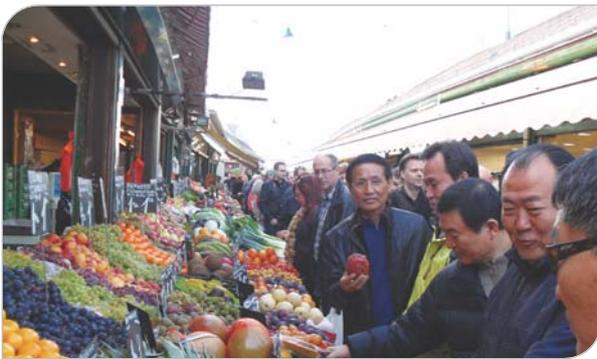
- 빈 점포 발생시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 적극 설치
 - ➡ 카페, 주차장, 공원, 쉼터, 유치원, 화장실 등 시장구역 조정차원
-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상품)브랜드 개발
 - ➡ 성장 잠재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빈 점포에 판매장 설치
-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발굴」시장 활력 사업필요
 - ➡ 시장내 빈 점포 개발, 청년창업자 경영 위탁, 빈 점포 억제효과

[4] 전통시장내 야채·과일 등 가계 상품진열 우수

❖ 야채·과일 등 가계별 상품진열은 고객이 구입할 수 있는 욕구가 나도록 볼륨감 있는 상품진열이 우수함

1 주요 추진내용

- 비엔나 나슈마르크(전통시장)은 우리의 전통시장 환경과 유사한 시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구비
- 가계별 상품 진열상태도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허리선 높이의 야채·과일가계 진열, 볼륨감 있는 상품진열이 우수



▲ 야채 및 과일 가게(1)



▲ 야채 및 과일 가게(2)

- 유기농산물의 경우 소포장, 가격표시 등 고객의 눈 높이에 맞는 상품구비 및 진열로 판매율 제고



▲ 유기농산물 소포장 전경



▲ 소포장 및 가격 표시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대형마트, SSM에 대응 할 수 있는 상품진열 탁월
- 배추, 무우 등 허리선 진열대에 배치, 고객편의 지원
- 경제가 불황일수록 마케팅적 시야, 시각, 시선이 필요
- 상인교육을 통한 마케팅 방법 등 상인의식 개혁 필요

3 도정 접목방안

【우리의 환경】

- 배추, 무우 등 대부분 바닥에 쌓아 놓고 쪼그리고 앉아 고르고 있는 것이 현실
- 대형마트, SSM에 비해 전통시장 상품진열은 후진국 형
- 상품에 대한 안내판이나 가격표는 고객 눈높이 진열미흡

【정책 건의사항】

- 시장 활력을 높여 주는 「마케팅」사업 지원
 - ➡ 상품진열, 할인행사, 이벤트, 위생·청결관리 등
- 상인의식 개혁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 확대
 - ➡ 점포지원, 고객유치, 공동구매, 가게 컨설팅 등
-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통한 시장 활성화 추진
 - ➡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소포장, 포인트카드 도입 등
- 경영기법 개선 필요

V 출장 소감



| 유럽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

강 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0. 21~10. 30일까지 8박 10일간 유럽 3개국(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을 방문하면서 이들 국가의 경제와 농업분야 제도에 대한 이해와 국민들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우리가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는 EU가입국으로 대한민국과 EU간에 지난 7월에 FTA가 발효됨에 따라 이들나라들에 대한 경제와 농업분야 현실파악이 필요했다.

문 닫은 가게를 리모델링 후 먹자골목으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고 주말이면 대형주차장에 벵룩 시장 운영으로 상생발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전통 시장, 1800년대에 미래를 반영하여 전통시장 설계를 한 부다페스트 중앙시장, 시청 앞 광장을 이용하여 연중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비엔나 시청,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낙후됐던 마을을 어떻게 하면 잘 살수 있을 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3년간의 주민토론을 통해 소각발전소를 건설 하여 지역 에너지를 자체 해결 하고 있는 귀쌍시, 천혜의 자연환경과 옛 농가를 농촌호텔로 리모델링하여 관광자원화하여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레오강마을, 2050년 수력 발전·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목표로 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에너지 정책, 1,000년전의 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보존을 통해 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유럽 3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임에 틀림이 없었다.

또한, 오스트리아 재무부 수출지원국장, 헝가리 부다페스트시 부시장 체코 농업부 국장의 따뜻한 영접과 직접적인 브리핑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선진국다운 공무원상을 엿볼 수 있었다.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이에 국민이 순응하고 결집하여 국가의 시너지 효과로 이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도 근시안적인 시야를 넓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의식전환과 함께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사고로 선진국 진입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끝으로, 방문 3개국의 경제와 농업 현실을 파악 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서 도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일념 하나로 공식 방문일정 소화를 위해 새벽 2시에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불평이 없었고 단 한번의 아침 출발 시간도 어기지 않으신 농수산 경제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새로이 습득한 식견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 유럽 오스트리아 농업을 돌아보면서 |

조 길행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일행과 함께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8박10일 일정으로 경제와 농업분야 등 전반에 걸쳐 선진국의 실태를 살펴보면서 농업분야의 선진국의 제도와 생산 유통 특히 유기농 등을 살펴보고 의정생활에 접목하고자 해외연수를 갖게 되었다.

그동안 각 지역의 의원들이 여러 차례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도민들의 보는 시각이 곱지 않아 이러한 모습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전 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주요일정을 관광성 외유가 아닌 해외 연수를 통한 더 많은 효과를 거두어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 견인 한다는 목적의 연수계획을 가지고 이번 연수에 합류했다.

실질적으로 연수는 어떤 분야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몸에 익히기 위해 특별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해 교사는 교사연수를, 올바른 법조인이 되기 위해 사법시험 합격자는 사법연수를 기업의 입사자는 회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위해 사원 연수를 받는다.

이렇듯 연수는 충실하고도 성실한 업무를 수행하기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연수를 통해 선진국의 문화와 생활상을 보고 느끼는 수준의 연수라도 사실 연수의 목적은 의정활동의 기초로 삼을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첫 방문지인 오스트리아를 돌아보면서 우리와는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우선 세계 2차 대전으로 입은 피해가 심각했음을 엿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의 오스트리아 경제는 고도의 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제철산업 금속가공업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관광산업도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었다.

우선 오스트리아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동부의 평원과 서부의 산지 목초지는 한쪽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이 아름답게 잘 조성 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의 농업 구조를 살펴보면 100ha 이상의 대규모 영농이 영농지의 20%를 차지하고 주로 곡물 사료작물, 사탕무우 등의 운작 재배 형태이다 야채는 주로 양배추 생산과 과일로는 포도 사과 배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서부의 구릉지에서는 경사면에 포도가 많이 재배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본의원은 주로 오스트리아의 유기농업과 농업 제도 등을 보면서 특히 EU 모두가 유기농업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음을 접할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방문한 오스트리아는 EU중 유기농 비중이 가장 높고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전체적인 유기농비중은 12%정도로 꾸준한 발전을 거듭함을 볼수 있었다

특히 EU에 대한 유기농산물 시장 지배율 또한 매우 높았다.

그만큼 국민 모두가 자국의 유기농산물 이용을 보편화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유기축산이 발달되어 유기축산의 비중이 높고 그중 양이 일반적인 유기축종임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경우 전체 양 두수의 25%가 유기축산 방식으로 사육되고 있으며 소의 경우도 사육 두수 중 18%가 유기축산으로 사육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축산도 글로벌시대의 시장 개방화 따른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유기농산물의 발전과 유기축산의 성장은 철저한 인근 EU와의 교역시 철저한 검역검사 시스템과 적정량의 생산을 도모하는 농산물 생산 쿼터제에 의한 생산 유통에 따른 가격보장으로 농업에 대한 국가의 관리체계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의 농업도 이젠 매년 반복되는 가격 하락, 폭등에 대비한 적정량 생산을 통한 수급 조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우리와는 많은 차이점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의 농업인에 대한 재해보험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는 농업치료, 재활, 생활연금, 등 다양한 서비스로 혜택을 보고 있고

특히 풍수자연재해 보험 등은 법적 의무화로규정 되어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율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손실이 많아 농가의 경제적 노동력 등 손실이 매우 높다.

오스트리아의 농업인에 대한 농작업 관리 제도를 살펴보면 어떻게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는지 또한 토지의 계획적 활용에 대해 어떤 접근을 해왔는지를 접해 보면서 비단 역사와 현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현실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범 국민적 차원에서 집단적 지혜를 모은 모습을 접해보면서 우리농업도 농업의 경쟁력확보와 농업인의 농촌인력 유지를 위해 예방 관리제도 등 우리농업인에 대한 특화된 재해보상 제도 마련과 필요한 토지의 사용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정보제공 등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해외연수를 바탕으로 좀 더 능률적인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

VI 언론 보도내용

▶▶ MBC 라디오 『시대공감』 [10. 14(금) 07:00]

- 출장 경비 880천원 자부담
- 농업, 경제, 전통시장 등 선진사례 벤치 마킹

▶▶ CMB TV 『충청매거진』 [10. 15(토) 08:00]

- 충청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좋은 사례
- ① 출장 경비 880천원 자부담
- ②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유럽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나라 선정
- ③ 친환경 선진농업, 경제 등 벤치마킹 수립하여 심의위원회 의원들로부터 좋은 평가
- ④ 선진사례 등 우리나라에 접목하는 것 좋은 사례

충청남도의회 농경위, 해외 의정연수 새로운 시도

공감언론 **NEWSis.** () 국내 최대 민영 뉴스통신사 2001-2011 (2011. 10. 16)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 의원들이 해외 의정연수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 농경위 의원들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으로 해외 의정연수를 떠난다. 의원들은 관광일정을 대부분 배제하고 자부담까지 들여 FTA해법 모색, 친환경 농업정책 현장 등을 돌아보는 등 도민과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이번 의정연수는 도비서 360만원이 지원되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88만원을 보태 유럽 각 나라별로 특색 있는 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의원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재무부를 방문해 한-EU FTA 발효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내용을 파악하고 신재생에너지마을에도 들러 에너지 절약사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유기농채소 생산농가에도 들러 1960년대부터 시행한 선진 친환경정책을 파악하게 된다.

의원들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전통시장과 헝가리 부다페스트 중앙시장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부다페스트시의회도 들러 선진의정활동을 탐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체코 정부의 농업부를 방문해 한-EU FTA 발효에 따른 품목별 경쟁력 강화, 농업 체질개선, 농가 피해보전대책 등을 확인한 후 충남도에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강철민 위원장은 "그동안 의회에서 해외 의정연수를 가는 데 대해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고 실제 관광성 연수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있어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모색했다"며 "이번 해외 의정연수는 충남에 당면한 과제와 문제들을 중심으로 벤치마킹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유 효상 기자)

충남도의원 해외출장 일부 경비 자부담

도의원 1명당 88만원 자비내기로

 연합뉴스 (2011. 10. 12)

최근 대전 유성구의원들의 해외출장을 놓고 외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원들이 해외출장을 떠나면서 경비 일부를 자비로 부담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도의원 8명은 오는 21일부터 8박10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3개국을 방문한다.

이들 국가의 농업정책과 농산물 생산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의원들에게 책정된 해외출장 경비는 1인당 360만원으로, 계획했던 일정을 소화하는데 1인당 80만~9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일정 축소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 전체의 경비의 20%인 부족분(88만원)을 자비로 내기로 결정했다.

도의원들의 출장일정을 보면 오스트리아 재무부 수출후원국과 헝가리 부다페스트시의회, 체코 프라하 농업부 등 주요 기관 방문 위주로 짜여 있다.

기관 방문 중간중간에는 신재생 에너지마을이나 유기농채소 생산농가, 농촌관광마을 등을 방문하는 일정도 포함돼 있다.

도의원들의 이런 계획은 최근 도의회 해외연수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출장 프로그램이 좋은 것도 있지만 자비를 들여서까지 출장을 가려는 의원들의 열정을 높이 산 것. 강철민 위원장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기 위해선 의원들 스스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며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 은파 기자)



오랜만에 칭찬받는 충남도의원 8명

도의회 농경위 소속... 경비 각출해 유럽3개국 방문길 떠나



충남도의회 농경위, 도의원 각출해 해외 출장길

12일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따르면 강철민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8명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3개국을 방문한다. 이번 출장길은 도의회 농경위 소관 업무인 농수산 분야나 경제 분야와 관련해 선진국의 실태를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계획됐다. 눈에 띄는 점은 소요 경비다. 의원들에게 책정된 예산은 1인당 360만원씩 총 2880만원이다.

의원들은 이외 각자 88만원씩 총 7백만여만원을 각출해 경비에 포함시켰다. 전체 출장 경비의 24% 수준이다. 해외 출장길에서 신재생 에너지 마을이나 유기농 채소 생산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 8월 19일 열린 해외 연수 심의 위원회에서 위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해외연수를 가면서 의원들이 자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관광 일정도 있지만 대부분 공식 일정 소화

물론 전체 일정 가운데 관광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나 헝가리 부다페스트 방문 일정의 경우 농산물 시장이나 시의회 등 공식 일정 이외 농촌 체험 관광의 일환으로 주변 관광지를 둘러본다.

하지만 대부분 일정이 오스트리아 재무부 수출지원국이나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의회, 체코 프라하 농업부 등 공식적인 방문으로 짜여져 있다.

강철민 위원장은 “지방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난다면 비난 일색인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경비를 각출했다”면서 “놀러가는 해외 출장이 아닌 도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뭔가 얻어오는 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 상현 기자)

유럽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강철민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충청투데이 | 충청권 최대 일간 신문 (2011. 11. 16)
CCTODAY.CO.KR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0. 21~10. 30일까지 8박 10일간 유럽 3개국(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을 방문하면서 기관방문을 통하여 경제와 농업분야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이해와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인들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우리위원회는 공무국외 출장 심의위원회의 만장일치 원안통과와 신문, 방송사로부터의 찬사, 출국일과 귀국일을 빼놓고 하루의 문화 탐방일정을 제외하면 모든 일정이 공식방문으로 짜여져 있어 부담스러운 국외출장이었다. 우리가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는 EU가입국으로 대한민국과 EU간에 지난 7월에 FTA가 발효됨에 따라 이들나라들에 대한 경제와 농업분야 현실파악이 필요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중심지이자 수출주도형 국가로 친환경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었다.

비엔나에 위치한 나슈마르트 전통시장은 문 닫은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먹자골목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유치에 성공하였고 비엔나시는 시청 앞 광장을 이용하여 연중 이벤트 장소로 활용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고 있었다.

또한, 귀성 시는 오스트리아의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1990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마을을 조성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민 전체 회의로 지역의 풍부한 목재를 이용하여 목재소각 발전소를 건설하여 지역의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었다.

이어서 방문한 체코 농림부의 마르타 테플라

과장은 “30여년간 체코 농림부에서 근무했지만 체코 농림부를 찾아온 한국 공공기관 대표단은 처음이다”며 적극 환영했으며 정책 브리핑에서 유럽 각 나라의 농업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농업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유럽회원국간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오스트리아 재무부 실비아 마카 수출후원 국장, 헝가리 부다페스트시 쇼모시 머크로시 부시장, 체코 농림부 마르타 테플라 과장의 따뜻한 영접과 직접적인 브리핑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선진국다운 공무원상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이에 국민이 순응하고 결집하여 국가의 시너지 효과로 이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도 근시안적인 시야를 넓혀 앞날을 내다 볼 수 있는 의식전환과 함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로 선진국 진입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또한, 드넓은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과 민박 등 겸업을 통해 농가고소득을 창출하는 농업선진국들을 보니 부러움과 함께 충남도 역시 농정 혁신과 우리 현실에 맞는 지원정책을 통해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야한다는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새로이 습득한 식견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동유럽 성공사례도 '주민의지'가 원동력



이 준우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충도일보** (2011. 11. 16)
60년의 두드림, 미래 향한 큰 울림

지난 10월 21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3개국의 농업 현장을 다녀왔다.

3개국 모두가 그렇듯이 도심지를 벗어나면 가도가도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농경지 면적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농가당 농지 소유면적이 비교적 적다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가 15~18ha 수준이며 체코의 경우는 무려 150ha라니 우리 도내 평균 1.54ha에 비하면 규모 면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

식량자급률 또한 헝가리 154%, 체코 198%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25.3%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농업부분에서는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다.

체코의 경우 대규모 농지 소유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저생산성과 국민의 3%에 불과한 농업 인수가 발목을 잡았고, 농업천국이라는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농촌개발 소외지역이 있는가 하면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이 두드러져 지역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주목받았다.

체코는 광활한 농지규모를 소유했음에도 EU가입 및 WTO 개방과 함께 농업부문에서 결정타의 손실을 입으면서 오히려 그 여건을 잘 활용하여 곡물과 낙농 부문에서 꺾꽂히 버텨낼 수 있었다. 최근 농업인구가 점차 증가한다는 통계가 이를 반증한다.

오스트리아 '귀싱 마을'은 당시 경계가 사회주의 국가 헝가리와 접해있던 관계로 산업화에서 철저히 소외돼 20년전 국내에서 '가장 못사는 지방'이라는 오명으로 모두가 떠나는 지역으로 이름나 있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은 사람들이 다시찾는 생태마을로의 전환을 꿈꾼다.

화석연료로부터의 완전 독립을 선언하고 주위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각발전소를 건립하여 바이오디젤 200%, 열 98%, 전기 140%를 충당하고 남은 에너지는 인근 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이런 여건이 조성되자 중소에너지 기업과 유럽 유수의 연구원들이 줄줄이 들어오면서 4000명의 작은 마을에 1,2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매주 500여명의 관광객도 다녀가고 있다.

또 있다. 잘츠부르크에서 남쪽으로 1시간쯤 가면 인구 3,000명의 작은 '레오강'이라는 마을이 나온다.

레오강은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도 1990년대 초반까지 이를 소득증대와 연결시키지 못했다. 산 중턱에 초원이 멋지게 펼쳐져 있었지만 여름철 이곳을 찾는 도시민은 그다지 없었을 뿐더러 마을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빠져 나가 매년 인구는 줄어 들었다.

이 지역 주민들 또한 아이디어 회의에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산악자전거 전용공간,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소, 농가민박 유치를 통하여 이제 연간 수십만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데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동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점도 있지만 반면 일조량 부족, 산악지역 등 불리한 여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구책을 통하여 극복해 나가고 있다.

잘사는 마을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도움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로 일어서려는 노력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일면을 깨우쳐 준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대규모 토지에 씨를 뿌리고 낱알이 익으면 기계로 수확하는 단순 농업에 비해 우리 농업인들은 그들과 비교되지 않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원예작물 하나만 보더라도 종자에서부터 묘파종, 비배, 일조, 사양관리 등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농부들 만큼 과일, 채소를 잘 가꾸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

그런 것이 우리가 그들과 경쟁하여 이길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들 나라를 부러워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자구책을 스스로 찾아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헝가리 국회의사당에서

